

스포츠 / 문화

‘함께 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34회 세계평화의 날 맞아 ‘평화주간, 명박수여, 좌담회’ 열려

〈명예 박사 학위〉

피스바 페스티벌 2015

김예준 기자 00179jun@kh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34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세계평화의 날’은 지난 1981년 6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종회에서 당시 의장직을 맡고 있던 우리학교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UN으로 하여금 세계 평화의 날 및 세계 평화의 해를 제정·공포하도록 제의하자’고 건의한 이후, 1981년 11월 제36차 UN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공식 제정된 기념일이다.

‘세계평화주간’을 선포한 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테러, 원자력 문제와 같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캠과 국제캠 각각 16, 17일 세계평화주간 선포식

이번 선포식은 후마가 준비한 세계평화주간 행사 소개와 ‘평화의 풍선 날리기’, ‘선포식 공연’으로 구성됐다. 이어 이문재(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평화만이 평화로 갈 수 있다’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하며 세계평화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포식은 음악대학원 송덕일·성명은 듀오의 ‘넬라판타지아’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선포식에 참여한 원경준(경영학 2011) 군은 “우리학교에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있는 줄 몰랐다”며 “우리가 날렸던 풍선에 담은 기대처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유 학장은 “학생들이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른 지식인으로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내년에는 후마위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행사를 주관해 더욱 보람찬 행사가 되게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우리대학에서 故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에 명예 평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본 수여식은 ‘Peace BAR Festival 2015’의 일환으로,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됐다. 故 바



지난 16일 세계평화주간 선포식에 참가한 구성원들이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풍선을 날리고 있다

출라프 하벨(Va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의 동생인 전 카렐대학 이론연구소장 이반 하벨(Ivan Havel) 교수가 대리로 수여했다. 故 바츨라프 하벨(1936~2011)은 ‘프리하의 봄’을 쓴 극작가이자 ‘벨벳 민주혁명’을 주도한 반체제 지성인이다. 우리대학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반정치의 정치’를 실현한 그의 업적을 높이 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

명예 평화학 박사학위 수여

수여식에 앞서,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는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상이 상영됐다. 그 외에도 토마시 후사(Tomas Husak) 주한 체코 대사, 체코 카렐대학교 마르틴 부트나(Martin C. Putna)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체코 국립 음악대학과 우리학교 음악대학의 협연으로, 체코의 국민영웅 안토닌 드보르작의 2악장 월츠가 연주됐다. 뒤이어 故 조영식 학원장이 작사하고 박태준 작곡가가 작곡한 〈목련화〉 제창을 끝으로 식을 마쳤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세계 평화의 날 기념 특별좌담회’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정윤찬 전 서울대 총장과 고려대 염재호 총

장, 우리학교 조인원 총장이 패널로 참여해 약 3시간 동안 ‘대학의 미래, 정치의 미래: 21세기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 염재호 총장 “학생 방목하고 있는 지금의 명”을 주도한 반체제 지성인이다. 우리대학은 반성해야 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5.09.24.〉

세계평화의 날 기념특별좌담회 대학의 사회적 책무 토론

토론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현 위치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 패널은 ‘대학은 사회적 문제들에 경고음을 발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이 사회적 지식인의 육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염 총장은 “대학은 더이상 사교육을 통해 잘 만들어진 학생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다양한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며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방목하는 것은 좋은 대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설립 이념이나 가치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개인의 이익과 가치도 좋지만 공동체에 협신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농구부, ‘2015 대학농구’ 3위

김현국 감독 “플레이오프 준비 매진할 것”

2015 대학농구리그 결과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우리학교 농구부가 24일 열린 고려대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를 3위로 마무리했다. 우리학교는 접전 끝에 61-67로 패했다.

우리학교는 최종전인 고려대와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3위가 확정된 상태였다. 고려대 또한 2위인 연세대에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우리학교와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우승을 확정된 상태였다. 고려대는 이날 경기에서 국가대표 차출로 이종현, 문성곤, 강성재 선수가 결장한 채 나머지 멤버들로 경기에 임했다.

대회 내내 괴롭히던 낮은 슛 성공률이 결국 최종전인 이날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았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학교의 3점슛 성공률은 21%로, 총 세 번 성공에 그친 반면, 고려대는 3점슛으로 총 9번 득점에 성공했다. 또 자유투 성공률 또한 50%에 그쳐, 80%를 기록한 고려대에 비해 크게 뒤졌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도 밀린 우리학교는 리바운드에서도 열세를 보이며 승리를 내줬다.

지난 14일 선두를 달리던 고려대가 예상치 못하게 건국대에 패하면서, 우리학교는 남은 일정인 조선대전, 동국대전, 고려대전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우승을 노려볼 수 있었다. 15일에 열린 조선대

〈이번대회 우리학교 경기 결과〉

일시	상대	결과
3월 23일	연세대	71-57 승
3월 31일	성균관대	66-56 승
4월 7일	건국대	79-67 승
4월 13일	상명대	69-58 승
4월 27일	단국대	75-65 승
5월 4일	연세대	66-70 패
5월 13일	상명대	73-58 승
5월 19일	건국대	79-71 승
5월 27일	성균관대	75-56 승
6월 3일	단국대	61-58 승
8월 28일	한양대	65-64 승
9월 1일	중앙대	74-92 패
9월 8일	명지대	70-58 승
9월 15일	조선대	67-61 승
9월 21일	동국대	90-93 패
9월 24일	고려대	61-67 패

의 경기에서는 무난하게 승리했지만, 21일 동국대와의 경기에서 90-93으로 아쉽게 패하며 우승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회의 부진은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생긴 전력 손실의 탓으로 보인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커 아쉬움이 크다”며 “다가올 플레이오프 경기를 위해 리바운드와 박스아웃 연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를 3위로 마감한 우리학교는 오는 10월 6일부터 한양대와 중앙대 전의 승자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루게 된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